

대구부립도서관과 일제의 식민지정책

Taegu Burip Library and Japanese Colonial Policy

김 남 석(Kim Nam-Seok)*

< 목 차 >

- | | |
|-------------------------|--------------------------|
| I. 서론 | 1. 설립 |
| II. 일제의 사회교육정책과 공공도서관정책 | 2. 조직 |
| 1. 한일합방 이전 | IV. 대구부립도서관의 활동을 통한 정책분석 |
| 2. 무단정치시기 | 1. 자료조직 |
| 3. 문화정치시기 | 2. 예산 |
| 4. 황민화정치시기 | 3. 열람 |
| III. 대구부립도서관의 설립과 식민지정책 | V. 결론 |

초 록

일제의 도서관정책은 한국인의 독립운동으로 전개된 민족 계몽을 위한 도서관활동을 저지하고, 관 주도의 도서관을 통한 조선인에 대한 일본문화의 식민화였다. 대구부립도서관은 일제가 관 주도로 설립한 한국 최초의 부립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설립 배경과 활동을 식민지 정책과 연계시켜 조사, 분석하여 일제의 도서관정책의 허구성과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도서관사연구, 일제의 식민지정책연구 그리고 대구의 도서관사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 공공도서관, 대구부립도서관, 일제식민지정책, 한국도서관사

Abstract

Japanese colonial library policy was to interfere with the library activities by Korean leaders to enlighten Korean people as a form of independence movement, and through the government library to colonize Korean people into Japanese culture.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background of foundation and activities of the Taegu Burip Library which was officially founded first in Korea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t tries to find the hided intention of the Japanese colonists to establish the libraries in Korea as a part of their colonial policy.

Key Words : Korean Library History - Japanese Colonial Period, Public Library History, Taegu Burip Library.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inas@kmu.ac.kr)

· 접수일 : 2001. 8. 16 · 최초심사일 : 2001. 11. 30 · 최종심사일 : 2001. 12. 5

I. 서 론

한국에 있어서 현대적인 의미의 공공도서관 설립은 1901년 한국에 이주해 있었던 일본인 거류민의 사회교육을 위한 부산의 '홍도도서관'을 효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는 1910년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여 한국인을 무력으로 통치하기 위한 무단정책을 펼쳐 나갔고 이로 인해 1919년 민족저항운동인 3.1독립운동을 야기 시켰다. 일제는 폭발한 한국인의 저항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적으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내적으로는 당시 선각자들이 민족계몽을 위해 전개하고 있었던 교육활동을 점차적으로 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관 주도의 정규학교교육과 사회교화를 위한 도서관에 많은 정책을 할애하여 관심을 집중시켰다.¹⁾

대구부립도서관은 일제가 조선에서 공공도서관정책을 주도한 조선총독부도서관 설립 이전에 관 주도로 설립한 최초의 부립도서관이다. 당시 정규학교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회적인 여건임에도 부윤이 직접 주관하여 부립도서관을 설립하였다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수행하는데 도서관을 얼마나 중요한 시설로 취급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구부립도서관에 관한 설립배경과 그 활동사항을 연구한다는 것은 도서관을 통한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대구부립도서관의 설립배경이 된 한일합방에서 설립까지의 사회상과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해 표방한 교육정책 등을 도서관과 관계된 사회교육정책을 통해 규명해 보고, 둘째 일제시대 도서관의 설립과정과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활동에서 나타난 부윤의 역할 등을 알아보며, 셋째 대구부립도서관의 시설적인 현황과 활동의 분석을 통해 대구부립도서관이 한국인의 식민화에 끼친 영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일제의 사회교육정책과 공공도서관정책

1. 한일합방 이전

한일합방이전의 사회교육과 도서관에 대한 사항은 한국인에 의한 것과 일제에 의한 것으로

1) 金南碩 『日帝下 公共圖書館의 社會教育活動에 관한 研究』, 서울: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0. pp.172-173.

로 생각해 보았다. 한국에 있어서 신교육의 실시는 1894년 과거제의 폐지를 전후해서 교육기회의 일반화가 시작되었다. 고종이 갑오경장의 혁신과정에서 내린 조서(詔書)로 인해 학교교육이 제도적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교육이 감당해야 할 분야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²⁾ 개화에 의한 국민의 신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근대적 의미의 사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야기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사회교육은 개화사상의 격동기에 개화파인사들에 의하여 민중계몽을 위한 구국교육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종교단체, 애국운동의 추진세력인 문화교육단체, 농민·노동단체, 여성단체, 그리고 지방독지가 등이 서당, 강습소, 야학, 종람소, 도서관 등 비정규교육기관으로 교육열기가 확산되어 민간 주도의 사회교육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같은 민족계몽운동은 민간 주도형 사회교육시대를 여는 것으로 국민의 자주적인 자기교육의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으로 형성되게 하였다. 민족계몽운동으로 전개된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도서관을 통한 사회교육활동이었다.

한국인에 의한 근대적인 도서관은 국운이 위태로웠던 1906년 이후 애국운동의 일환으로 개화파인사들의 민중계몽을 위한 사회교육시설로 시작된다. 이들은 개화하는 길은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 것으로 이는 서적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적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용되어야 하며 이를 널리 보급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학문을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의 도입으로 현대식 인쇄기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서적이 대량으로 생산 보급되었고, 이들 도서를 직접 접하려는 국민적인 염원에서 근대적인 도서관설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전국의 민족단체에서 행하는 구국운동의 중심과제에는 거의 대부분이 도서관설립을 논의하거나, 실현하고 있었다.³⁾

1906년 2월초 이범구를 비롯한 유지들이 모여 한국도서관의 설립을 발기하고, 창설을 위한 평위원회를 구성하였다.⁴⁾ 도서관의 명칭을 '대한도서관'으로 정하고, 동년 3월 25일 도서관운영을 위한 역원을 선출하고 그 책임을 맡게 하였다. 또한 동년 3월에는 평양에 김대운, 진문옥, 박용순, 김흥연 등 4인에 의해 '대동서관'이 창립되어⁵⁾ 활동을 개시하였으며,⁶⁾ 1909년 9월에는 신후영 등이 '동지문예관'⁷⁾을 설립하여 국내외의 서적을 구입 비치하고 무료로 시민에게 열람하게 하였다. 이외도 문고형태의 서적열람을 위한 '수봉정사문고'⁸⁾, '영규헌문고' 등이 있었다.

한국인에 의한 현대적인 공공도서관이 설립되기 이전 조선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

2) 黃宗建, 『韓國의 社會教育』. 서울: 교육과학사, 1978. pp. 187-188.

3) 金南碩, 『日帝下公共圖書館의 社會教育活動』.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pp. 189-206.

4) 《皇城新聞》光武10年 2月 12日字, 雜報.

5) *Ibid.*, 1906년 2월 15일, 2면.

6) 《皇城新聞》光武10年 4月 9日字.

7) 白麟, 『韓國圖書館史研究』.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p. 149.

8) 李春熙, "門中文庫에 대하여", 《한국비블리아(성균관대학교비블리아학회)》제2집(1974), p. 89.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2권 제 4호)

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거류민을 위한 사회교육시설로 1897년 5월 일본홍도회원이 발기하여 1901년에 홍도부산지부가 설립한 '부산도서구락부'⁹⁾(일명 홍도도서관)이다. 이를 필두로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1902년 2월 강경문고, 1909년 2월 경성문고, 1909년 7월 목포독서구락부가 설립되었다.¹⁰⁾ 이들 시설은 일본인 거주지역내의 일본인만을 위한 종람소였기 때문에 비록 한국 땅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인 공공도서관이기는 하나 당시 한국인의 이용이나 신문화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 도서관이 한일 합방을 계기로 부립도서관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역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초의 근대적인 공공도서관의 역사에서는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한일합방이전에는 일제의 사회교육이나 도서관 등에 관한 정책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상을 중심으로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2. 무단정치시기

무단정치시기는 1911년 8월에서 1922년 2월까지로 제1차 교육령 시행시기이다. 제1차 교육령은 조선인의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따라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¹¹⁾고 하여 조선인을 일본천황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을 그들의 교육목표로 하였다. 사회교육이념 역시 상기한 교육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조선어 및 조선의 풍습에 정통하고 사회교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임지도자를 내무국에 두고, 수시로 지방에 파견하여 일본화에 자각을 함양하도록 하였다.”¹²⁾ 저명한 친일분자들로 구성된 전임지도자들과 소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관선지도자를 사회교육요원으로 하여 순회강화회, 강연회 및 각종 회합의 형식으로 지방민심의 개발과 선도에 치중하게 하였고, 교화사업의 내용으로는 내선융화, 민풍개선, 근검저축, 민력함양, 생활개선 등¹³⁾으로 일본천황에 충성하는 식민지인으로 교화하는 것이었다.

교육에 관한 행정조직을 내무부 학무국 학무과에 소속시켜 학교, 유치원, 도서관, 기타학제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게 하였다.¹⁴⁾ 이 시기는 조선인 중에서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교화를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나타낼만한 정도

9) 白麟 編, *op. cit.*, p. 150.

10) *Ibid*

11) 《第1次 教育令》, 勅令 第229號(1911년 8월 23일), 第2條

12) 金道洙, “日帝植民地下的 社會教育政策에 관한 研究”, 『平生教育과 社會教育』, 서울 : 배영사, 1982. p. 226.

13) *Ibid* p. 232, 248.

14) 朝鮮總督府 學務局 社會教育課, 『朝鮮社會事業便覽』, 京城 : 同 學務局, 1933. p. 213.

의 도서관정책은 없었고, 일본인 관료가 관립도서관설치안을 제기하는 정도였다.¹⁵⁾ 그러나 조선각지에 이주해 온 일본인 거류민사회의 교육시설로 합병이전부터 설립된 강경문고, 경성문고, 목포구락부 등에 이은 일제의 사립도서관설립활동이 계속되었다. 한편 일제는 합병초기 무단정치로 합병이전에 크게 고조되었던 조선인에 의해 설립된 대한도서관, 대동도서관 등의 민족도서관활동을 탄압으로 소멸시키고, 취체와 분서를 통해 민족계몽활동으로 전개되는 모든 도서관활동을 노골적으로 저지한 시기이다.¹⁶⁾

이 기간동안에 24개의 도서관설립활동이 있었는데 그 중 17개관이 일본인 거류민의 교육을 위한 시설로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인이 민간 주도로 설립한 사립도서관이었고, 조선인에 의한 도서관은 종교단체와 독지가에 의한 것으로 일본인 도서관에 비해 크게 빈약한 열람소나 종람소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3. 문화정치시기

문화정치시기는 1922년 2월부터 1938년 3월까지의 제2차 교육령¹⁷⁾ 시행시기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야기된 조선민족의 감정을 무마하기 위해 외형적으로는 문화정치라는 교육정책의 전환을 가져왔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선인의 반일 감정을 억제하고 천황사상의 주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 관제를 部에서 局으로 개편하여 학무국을 독립시켜¹⁸⁾ 독립운동으로 야기된 민심을 수습하고, 한편으로는 사회교육시설을 통한 동화정책을 펼쳐나갔다. 이 시기 사회교육의 정책과 활동방향은 (1) 내선일체의 신념을 천명하여 황실을 중심으로 국민의 일치단결을 굳게 하고, (2) 내선일체의 사업은 동근동조의 관계에서 내선융화로부터 상호간 혈연적 연속을 굳게 하고, (3) 모든 난국을 타개하여 진중보국의 정신을 일상생활에 실천구현하며, (4) 국헌을 중시하고 국법을 준수하는 정신을 강화하여 국가질서의 도덕적, 법률적 안전교화를 도모한다¹⁹⁾는 ‘국민정신의 작흥(作興)’에 표명된 지도 이념이었다. 이 때 사회교육활동을 위한 비용은 많은 부분을 일본 천황의 은사금으로 충당하였다.²⁰⁾ 이러한 지도이념에 따른 사회교육사업은 학교를 교화의 거

15) 權恩瓊, 『韓國圖書館近代化의 史的考察』, 東京: 東京大學校, 1979. pp. 59-60.

16) 宇治郷谷, “近代韓國圖書館史の研究”, 『參考書誌研究』 第1號(1985年 9月), p. 8.

17) 제2차 교육령의 특징은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를 채용하여 소위 ‘내선공학(內鮮共學)’을 규정하고 형식상 이른바 ‘일시동인(一時同人)’을 실시한다는 것으로서 일본준거였다.(大野謙一, 『朝鮮教育 問題管見』, 京城: 朝鮮教育會, 1936. pp. 93-94).

18) 《朝鮮總督府官報》 第29號, 號外(1919年 8月 20日).

19)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社會教育要覽, 1941』, 京城: 1941. pp. 15-16. 1923年 11月 10日 ‘國民精神作興에 관한 詔書’ 公布.

20) 牙山社會福祉財團, 『韓國의 社會福祉』, 서울: 經研社, 1979. pp. 40-41.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2권 제 4호)

점으로 하여 학구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내선유희, 생활개선, 교육, 생산 등에 관하여 강화, 강연 등의 형태로 학교졸업생에 대한 교화정책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농촌갱생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저지하고, 교화의 선봉장으로 활용하였다.

도서관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사회교육행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도서관정책을 최초로 착수한 시기이다. 일제는 당시 사립으로 설립된 도서관을 관립으로 전환하여 조선인에게 개방하게 하였으며, 도서관이 없는 거점지역에 道 지방비에 의한 도서관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大正13년 11월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개관준비에 착수하고 민중교화용 자료를 먼저 정리하여 大正14년 4월에 개관하였다.²¹⁾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전국에 도서관을 통한 사회교화를 계획하고 지방교화에 공헌하게 하는 중시시설로 운영되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시행한 사회교화활동은 정규학교와 공공도서관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는 학교구내에 간이도서관 및 문고를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졸업생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문헌을 통한 사회교화를 기하였고, 학교 이외의 사회교육을 위해 그 동안 일본 거류민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사설도서관을 조선인을 위해 개방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관 주도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사회교화를 위한 시설중심 사회교육을 전개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다. 이때에 설립된 공공도서관 중에는 일본천황의 은사금으로 설립된 것도 있다.²²⁾

1931년 만주사변이후 전쟁수행에 필요한 사상통일을 위한 사회교육시설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 2월 3일 직제를 개편하여²³⁾ 사회과에 서무계, 보호계, 교화계를 두고 사상선도, 지방개량을 위한 사회사업, 사회교육, 도서관 및 박물관, 청년훈련소, 교화단체, 사원, 향교재산 등을 관장하게 하였다.²⁴⁾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편승해서 1930년과 1931년 두 차례의 전국도서관장회의를 거쳐 1933년에 개정 도서관령 및 공공도서관직원령을 공포하였다.²⁵⁾ 1935년 조선총독부도서관개관 10주년 기념으로 일본도서관협회주최의 전국도서관대회를 경성에 유치하고, 1937년에는 조선독서연맹을 창립하여 국가적인 도서관활동을 과시하였다. 이렇게 도서관을 사회교화의 정책시설로 하여 적극적인 교화를 전개시키면서 식민지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일제는 문화정치초기 통제의 완화로 민족운동으로 전개된 조선인에 의한 도서관활동을 약화시키고 이에 대치될 수 있는 일제의 공사립도서관설립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1930년부터는 조선인에 의한 사립도서관활동은 감소되고, 공립도서관설립이 인구의 밀집

21) 『朝鮮年鑑』, 昭和十年. 京城: 京城日報社, 每日日報社, 昭和9(1934), p. 482.

22) 金南碩, 『日帝下公共圖書館의 社會教育活動』. *op. cit.* p. 80. : 福壽會恩賜紀念文庫(경남)는 1927년 이 기금으로 설립되었다.

23) 『朝鮮總督府官報』 第1528號(昭和7年 2月 13日).

24) 朝鮮總督府 學務局 社會教育課, 『朝鮮社會事業(便覽)』. 京城: 大梅堂 印刷株式會社, 1933. p. 213.

25) 石井敦, 『圖書館學教育資料集成』. 東京: 白石書店, 1978. pp. 127-134.

정도에 따라 부, 도, 군, 읍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들 도서관은 조선총독부도서관을 대표 도서관으로 하여 전국의 부립도서관을 지역 거점으로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위한 일관된 사회교육정책을 수행하였다. 일제의 도서관활동은 철도도서관을 통한 철도문고와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순회문고를 대대적으로 운용하였다. 철도문고는 철도연변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에 자료를 보급하여 문고를 통한 교화를 철도가 연결된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전국의 거점도서관에 순회문고로 부족한 자료와 식민지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였다. 또한 일제는 도서관에 독서 장려를 위한 교화원을 두어 가정을 방문하는 교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心田開發室’을 별도로 설치하여 조선인의 교화를 위한 도서관활동을 집요하게 전개하였다.

일제의 문화정치초기에는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경쟁적인 많은 도서관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문화정치시기에는 185개의 도서관활동이 있었는데 이중 101개의 활동이 일제의 교화를 위한 것이었다.²⁶⁾

4. 황민화정치시기

황민화정치시기는 1938년 3월부터 1943년 3월까지의 제3차 조선교육령시행시기와 1943년 3월부터 1945년 8월까지의 제4차 조선교육령시행시기이다. 조선총독부는 제3차 조선교육령개정에 앞서 1936년 10월 16일 직제를 개편하였다. 내무부에 사회과를 신설하여 濟生院 및 感化院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학무국의 사회과를 사회교육과로 개칭하여²⁷⁾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제3차 교육령시행시기의 사회교육정책의 핵심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정신구조개혁이었다. 황민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운동을 주도할 농촌중견청년을 민간지도자로 육성하여 교화의 선봉을 맡게 하였다.²⁸⁾ 1938년 전국조직으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결성하고, 일본화를 위한 교화사업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선인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민속의 황민화, 내선인통혼의 장려, 종교의 일본식 지도 등의 교화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사회교육제도의 정비, 국민총력운동, 창씨개명, 간이학교의 증설, 농촌진흥운동, 청년단체의 지도장려, 출판분야의 취체 등 계획적인 사회교육을 통하여 전 국토를 황민화학교로 개편하려 하였다.

제4차 조선교육령개정시기는 태평양전쟁의 패색과 관련 황민화교육을 전면에 부각시켜 군사목적으로 동원키 위한 개정이었다. 이 시기의 사회교육정책은 황민화 교육을 매개로 하여

26) 金南碩, 『日帝下公共圖書館의 社會教育活動』, *op. cit.* p. 58.

27) 《朝鮮總督府官報》第2689號, 號外(1936年 10月 16日).

28) 朝鮮總督府, 『朝鮮における農山漁村振興運動』, 京城: 朝鮮總督府, 1941. p. 2.

조선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동원시켜 조선인 청소년의 육체, 지식, 기술 등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²⁹⁾ 특히 황민화정책을 완성한다는 계획 하에 대대적인 일본어 보급운동을 전개하여 일반민중에 까지도 일본어 상용을 강요하고, 각종 집회에서는 반드시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일본어 보급을 위하여 전국에 3,600개소의 일본어강습소를 설치하였다.³⁰⁾

황민화정치시기의 교육정책은 조선민족문화를 말살하고 황국신민화하여 천황에 절대복종하고, 오로지 천황에 봉사하는 일본인화였다. 황국화교육정책을 강화하여 사학의 탄압, 교명의 개폐, 한국어사용금지,³¹⁾ 조선어신문과 잡지의 전면폐지, 창씨개명 등을 강요하여 조선의 민족정신을 조선인 사회생활로부터 말살하는 일본인화정책을 단행하였다.

이 시기의 도서관활동은 1939년 2월 8일부터 日本精神發揚週刊을 정하여 건국의 초기, 국방과 군비, 일본정신함양, 시국독물 등의 특별집서가를 설치하여 일반열람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명사의 강연 등을 통한 일본화에 전념하였다.³²⁾ 그러나 전시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은 불요불급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가장 소원한 시기였다.

이 기간동안에는 21개의 도서관이 설립되었는데 일제의 교화를 위한 도서관이 7개관, 조선인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이 14개관이었으나 조선인에 의한 도서관도 일제의 탄압으로 합병 초기의 민족 계몽적인 활동을 부각시키지는 못하였다.

Ⅲ. 대구부립도서관의 설립과 식민지정책

1. 설립

대구에 현대적인 의미의 공공도서관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독서당의 형식으로 도서관적인 기능을 일부 수행한 낙육제(樂育齋)를 들 수 있다.³³⁾ 낙육제는 조선왕조의 독서당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 그리고 18세기말 정조 때 학술연구 및 문신양성(文臣養成)이라는 이념으로 건립한 규장각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이다.³⁴⁾ 경상감사 趙泰億이 경종원년(景宗元年)에 설립

29) 金南碩, 『日帝下公共圖書館의 社會教育活動』, *op. cit.*, p. 22.

30)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京城: 朝鮮總督府, 1940. p. 824.

31) 金万珪, 『朝鮮教育史(下)』, 서울: 을유문화사, 1949. p. 344.

32) 《文獻報國》 第5卷, 第3號(昭和14年 3月), p. 17.

33) 張仁鎭, “嶺南樂育齋 攷 特히 嶺南地方의 圖書館의 機能과 그 嚆矢로서”, 《圖書館報(大邱市立圖書館)》 第3號(1978), pp. 89-114.

34) 李炫熙, “朝鮮王朝 兩班官僚 時代의 讀書堂考”, 《誠信女子師範大學研究論文集》 第4, 5輯(1972).

운영한 낙육제는 도내 유능한 유생들을 선발하여 독서와 제술(製述), 그리고 학술연구 등을 담당케 한 일종의 도서관적인 기능을 겸하고 있었다.³⁵⁾ 특히 낙육제의 도서 764책이 현재의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장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도³⁶⁾ 낙육제가 당시 상당한 장서를 가지고 도서를 통한 도서관적인 기능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낙육제의 설립을 영남지방의 전근대적인 관립도서관의 효시로 볼 수도 있다. 낙육제는 일제의 탄압으로 1906년 철폐되었고, 그 재산으로 대구 최초의 현대적인 교육기관인 협성학교가 설립되었다고 한다.³⁷⁾ 낙육제의 도서가 후에 설립된 대구부립도서관의 장서로 편입되기는 하였으나 낙육제가 철폐되고 14년이 지난 1919년에 대구부립도서관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인 면에서와 설립자, 설립목적, 그리고 운용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³⁸⁾ 낙육제 외에도 대구부립도서관이 설립되기 이전인 1915년 10월에 대구 인근인 경북동촌공립임상소학교에 경북에서는 최초인 御大典紀念文庫를 설치하여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화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대구부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경북에서 최초로 설립된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이고 관에서 주도하여 설립한 한국최초의 부립도서관의 효시이기도 하다. 대구부립도서관의 설립은 제2대 부윤 中野太三郎이 일본의 문화를 통한 사회교화기관으로 도서관 설립을 계획하고 1918년 8월 10일 대구부조례 제5조에 의거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³⁹⁾ 1919년 7월 29일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구 경상북도청(현 중앙공원: 대구시 중구 布政洞) 構內 賴慶館(木造 舊家屋) 上層에 건평 약20평으로 동년 8월 10일 대구부립도서관을 개관하였다.⁴⁰⁾ 1919년 8월 20일 제3대 대구부 부윤 松井信助는 부임초기부터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적인 기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공공도서관의 구상을 대구부립도서관을 통해 성취시킨 역대 관장 중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대구부립도서관 개관 당시 조선에는 공립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부산의 흥도도서관(1901)과 강경도서관(1907)이 있었지만 이들 두 도서관은 일본인 거류민을 위해 사립으로 설립하였다가 부립이나 공립도서관으로 된 것이고, 세 번째로 설립한 대구부립도서관은 지방공공단체의 부윤이 처음부터 부립으로 설립한 조선

35) 『大邱府邑誌』. 筆寫本 大邱 : 大邱府. 163頁; 徐錫台, 『大邱邑誌』. 印刷本 大邱府 : 鮮一印刷所(印刷), 大正13(1914). 15면.

36) 張仁鎭, “慶尙監營의 樂育齋 教育에 대하여”, 《漢文學研究(啓明漢文學研究會)》 第3輯(1992), p. 195.

37) 安潛 編, 『大邱鄉校誌』. 大邱 : 大邱鄉校, 1966. p. 15.

38) 김남석, “일제의 공공도서관정책과 대구부립도서관”, 『大邱中央圖書館80年史(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1999. p. 388.

39) 使用條例制定公布(《大邱府條例》 第5號).

40) 지금까지 제3대 부윤 松井信助에 의해 계획되고 설립되었다는 것은 그의 부임년도로 보아 전임자인 제2대 부윤 中野太三郎에 의해 발의되고 개관되었음을 알수 있고, 10일에 개관하고 20일에 松井信助가 부윤으로 취임하였다. 도서관 신축 등 사실상 대구부립도서관을 확장발전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松井信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에서 초대관장으로 명기하고 있는 것 같다.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920년 1월 24일 道廳舍의 관리사정으로 도청 구내 共進會陳列館(日本人 在郷軍人會館)으로 이관하였다.⁴¹⁾ 그러나 이 건물은 조잡한 자재로 축조된 것이기 때문에 파손이 심하였다. 부윤은 재임기간 동안 도서관건립을 계획하고 그 중요성을 부 협의회원과 일반유지에게 인식시키고, 이들의 찬조를 얻어 공사비 3만수천원을 투입하여 1923년 5월 7일⁴²⁾ 中區 東仁洞 부청구내(現 中區 廳舍) 대지 1,325평을 확보하고 도서관건축을 착공하였다. 그리고 준공에 관한 사항은 자료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每日申報의 기사는 “1923년 8월 9일 낙성식을 거행하고”⁴³⁾라고 하고, 또 다른 근거에는 “익년 4월에 준공하고 5월 20일에 공진회진열관으로부터 이전 개관하였다”⁴⁴⁾고도 한다.

신축된 대구부립도서관은 근대식연와조 2층건물로 정면의 현관상부는 3층이고, 그 모양은 ‘반딧불이’의 머리형으로 좌우 양 공간에 눈을, 그리고 중간부분은 ‘반딧불이’형으로 조각하여 螢雪의 功을 상징케 하였다. 도서관은 본관 연건평 113평과 그 외 小使室, 物置 등 부속가옥 50평으로 신축하여 1924년 2월에 신관으로 이전하였고, 1932년 10월에는 본관 30평을 증축하였다.⁴⁵⁾ 이렇게 신청사는 부청사, 무덕정과 함께 대구의 상징적인 건물로 알려질⁴⁶⁾ 정도로 대구부의 대표적인 건축물이기도 하였으며 전국에서도 손색이 없는 공공도서관이었다. 1934년 8월 3일부터 2일 동안 第1回全鮮府立圖書館主任者協議會가 대구에서 개최되어 당시 각 부립도서관이 당면한 현안을 합의안으로 당국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때 대구부립도서관의 “도서관사업의 장려를 위해 매년 국비와 도비 이외에 보조금을 하달하여 줄 것에 대한 건의안”도 결의하였다.⁴⁷⁾ 그리고 대구부립도서관은 도서관 관계 이외의 중요한 사회적 모임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⁴⁸⁾ 1938년 11월 1일 대구시기구개편으로 도서관시설의 일부를 대구시직할출장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실제적인 활동이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1945년 광복과 함께 일시 휴관하게 되었다.⁴⁹⁾

41) 『大邱府史』, 第二府政編 *op cit* p. 205.

42) 李孝鳳, “圖書館60年史”, 《圖書館報(대구시립도서관)》第4號(1979), p. 22.

43) 《每日申報》1923年 8月 13日. 4면: “圖書館落成式 대구부청구내에서 伊來신축중이던 대구도서관은 금회 공사의 낙성을 고하여 去9日正午부터 同館樓上에서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고...”

44) 1923년 6월에 신축도서관을 낙성하고, 7월 14일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동년 10월에 개관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45) 《朝鮮之圖書館》 第4卷, 第2號(昭和9年 7月), pp. 38-39.

46) 『大邱讀本』. 京城: 大邱府教育會, 昭和12(1937). p. 8.

47) 《朝鮮之圖書館》 第4卷, 第3號(1934年 11月), pp. 33-35: 會場: 大邱府廳會議室, 公會堂廳. 日程: 第1日各館事項報告 協議 第2日 協議及承合 慶州見學. 회의에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을 비롯한 목포, 함흥, 원산, 인천, 대구, 경성부립도서관, 그리고 인정보서관 등의 주임이 참석하고, 평양, 개성, 부산부립도서관의 주임은 당일 사고로 참석치 못하였다고 한다.

48) “慶北米穀商大會 大邱圖書館會議室에서”, 《朝鮮日報》(1931年 2月 10日), 6면.

49) 1945년이후 대구부립도서관은 1947년 속관하였으나 1949년 6월 6일 대구시청사의 화재로 도서관은 시청사로 사용되고 도서와 비품은 종로국민학교로 옮겨 무기한 후관에 들어 갔다. 1950년 6.25한국전쟁으로 달성공원으로 옮겼다. 1955년 시청사의 신축으로 동년 10월 5일 옛 건물에서 개관하였다.

대구부립도서관이 설립될 당시 대구부의 인구는 조선인 3만명과 일본인 1만명으로 총 4만 명이였다. 그리고 대구부립도서관이 설립될 당시의 사회사정은 3.1독립운동의 여진으로 민족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였다. 이러한 때에 일제가 부립도서관을 설립한 것은 3.1독립운동의 여진으로 민족감정이 고조되어 있었던 대구부민의 사회적인 불안을 문화정책의 가시적인 시설로 회유하면서 도서관을 통한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수행하는 거점시설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구부립도서관의 설립은 일본인이 조선의 도서관 정책과 실행을 위한 조선총독부 도서관을 설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도서관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당시 부윤의 개인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시범적인 교화시설로 설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구부립도서관이 설립되어 활동이 있는 후 1923년에 전국적인 도서관정책기관으로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대구부립도서관이 식민지 교화시설로서의 활동결과가 조선총독부도서관 설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2. 조직

1) 직제

일제기간동안 도서관과 관계된 직제는 상기한 도서관정책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위한 정책결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설립 당시 대구부립도서관은 대구부의 조직 중 재무과에 소속시켜 도서관경영일반을 관장하게 하였다.⁵⁰⁾ 재무과에는 교화사업과 사회사업을 관장하는 사회계,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직업소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34년 2월 지방의 '府,郡,島事務分掌標準'에 관한 건 및 1938년 6월 지방청의 '事務分掌'에 관한 건 通牒에 의하여 府에는 庶務課, 內務課 및 財務課를 두었는데 도서관의 업무는 내무과에서 관장하였다.⁵¹⁾ 대구부립도서관의 경우도 이들 직제규정에 따라 1934년부터 부의 내무과에서 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36년 대구부의 직제에서는 다음표와 같이 4개과 20개계를 두었는데⁵²⁾ 도서관에 대한 경영일반은 재무과에 계의 수준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50) 『大邱讀本』. *op. cit.* p. 54. : 당시 대구부에는 서무과, 내무과(교육, 학예, 향교재산, 종교, 소년단, 청년훈련소 등의 사업관장), 공영과, 재무과 등 4개과로 되어 있었다. 도서관행정은 정규교육기관과 달리 사회교육화를 담당하는 재무과에 소속되어 있었다.

51) 《總督府訓令》第94號(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朝鮮總督府官報》, 1934年 12月 1日 號外); 慶尙南道誌編纂委員會, 『慶尙南道誌(中卷)』. 1963. pp. 133-134.

52) 『大邱讀本』. *op. cit.* pp. 53-54. 서무과 --비서겸 서무계, 회계겸 재산계, 내무과 --내무계, 학무계(교육학예, 향교재산, 사사종교, 소년단, 청년훈련소...), 토목계, 영선계, 위생계, 호적계, 근업계, 공영과 --서무겸 국세계, 도세계, 부세금호별세계. 그리고 재무과 등 4과 20계로 조직되어 있었다.

재무과 --사회계(사회교화, 사회사업), 수도계, 승합자동차계, 공익질육,
도서관(도서관경영일반), 직업소개소

1942년 6월 부 훈령 제6호에 의해 개정 시행된 대구부의 사무분장규정은 9개과⁵³⁾로 확장 개편하였다. 이때는 사회과 내에 4개계를 두었는데 도서관에 관한 업무는 사회교화계에서 관장하게 하였다.⁵⁴⁾

사회과 --사회교화계(지방교화, 지방개량, 공익질육, 의례준칙, 향사 및 향교, 교화
단체, 도서관, 박물관, ...), 군사원호계(군사부조, 출정, 군사후원회,...),
노무계, 저축계.

그리고 1941년 4월 조례 제4호로 개정 공포된 대구부 吏員條例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府有給吏員을 두었는데 이중에 사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부 유급 인원은 주사, 기사, 醫長, 司書, 서기, 기수, 醫員을 두었는데 사서직은 도서관의 관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⁵⁵⁾ 이렇게 부 유급 인원으로 사서직이 명시된 것을 보면 사서직을 의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관장 및 직원

대구부립도서관은 제2대 부윤 中野太三郎이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1919년 7월 29일에 개관하였다. 그리고 1919(大正8)년 8월 20일부터 1924(大正13)년 12월 24일까지 재임한 제3대 부윤인 松井信助가 취임과 함께 관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대구부립도서관은 설립자로부터 1933(昭和8)년 전문직 관장으로 歌原恒이 임명될 때까지 13년 동안은 역대부윤이 겸직하였다. 대구부립도서관은 제2대 부윤 中野太三郎을 설립자로, 제3대 松井信助 부윤에서부터, 제4대 宮館貞一 부윤, 제5대 上內彦策 부윤,⁵⁶⁾ 제6대 山崎眞雄 부윤, 제7대 桑原一郎 부윤, 제8대 板垣只二 부윤, 제9대 多賀秀敏 부윤, 제10대 門脇默一 부윤 등이 겸임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문직관장으로 알려져 있는 歌原恒는 1931년부터 대구부립도서관 주임으로, 1933년 3월⁵⁷⁾부

53) 서무과, 내무과, 국민총력과, 사회과, 공영과, 토목과, 농림과, 상공과, 세무과 등 9개과로 조직되었다.

54)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 第2卷, 大邱: 大邱市, 1973. pp. 61-69. "1942年 6月 6日 府訓令 第6號에 의거하여 개정 시행된 大邱府事務分掌規程"

55) *Ibid.*, pp. 65-70.

56) 『慶尙北道統計年報』, 自大正八年-至昭和8年, 慶尙北道 編纂, 慶尙北道, 昭和5(1930) 發行. p. 319. 1928년 통계에서 관장으로 당시의 부윤인 제5대 上內彦策이 명기되어 있다.

57) 『朝鮮之圖書館』 第3卷, 第5號(昭和8年 12月), p. 2. 大邱府立圖書館長 歌原 恒으로 명기되어 있고, '第6卷, 第3號(昭和3年 2月), p. 56'에는 "大邱府立圖書館長 歌原 恒 氏...今般退職"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遼捨

터 1938년까지 대구부립도서관장으로 재직하였으며,⁵⁸⁾ 1939년부터는 宮內,⁵⁹⁾ 1942년 2월부터는 藤村誠次郎,⁶⁰⁾ 1944년 9월부터는 高橋耕一郎⁶¹⁾ 등이 관장으로 있었음을 각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대구부립도서관은 8명의 부윤과 4명의 전문직 관장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약 27년 동안 일본인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1945년 9월 28일 당시 대구시 문화계장 徐輔賢 氏가 관장사무를 취임하였다.⁶²⁾

<표 1> 대구부립도서관 역대 도서관장 일람

관 장 명	재 임 기 간	직 책	비 고
中野太三郎	大正 7年 2月26日-大正 8年 8月20日	府尹 兼職	第2代 府尹
松井信助	大正 8年 8月20日-大正13年12月24日	"	第3代 府尹
宮館貞一	大正13年12月24日-大正15年 5月24日	"	第4代 府尹
上內彦策	大正15年 5月24日-昭和 3年 3月30日	"	第5代 府尹
山崎眞雄	昭和 3年 3月30日-昭和 4年11月28日	"	第6代 府尹
桑原一郎	昭和 4年11月28日-昭和 6年 9月23日	"	第7代 府尹
板垣只二	昭和 6年 9月23日-昭和 7年 2月13日	"	第8代 府尹
多賀秀敏	昭和 7年 2月13日-昭和 9年 5月 1日	"	第9代 府尹
歌原 恒	昭和 8年 3月 日-昭和13年 2月 日	전임관장	
宮內	昭和13年 2月 日-昭和17年 2月 日	"	
藤村誠次郎	昭和17年 2月 日-昭和19年 9月14日	"	
高橋耕一郎	昭和19年 9月14日-	"	

*자료 : 『朝鮮施政發展史』. p. 796 ; 『大邱府史』: 第二 府政編. 大邱府: 昭和18年. pp. 30-31. 사이 별지(사진); 『慶北年鑑, 1942』. 京城: 朝鮮民報社, 1942. p. 131.

상기한 관장 중 최초의 전임관장인 歌原 恒은 전문인으로 전국적인 도서관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歌原 恒은 1931년 대구부립도서관 주임으로 있으면서 朝鮮教育會主催 圖書館事項講習會에 등록하여 수료증을 받았으며,⁶³⁾ 조선도서관연구회원,⁶⁴⁾ 지방재주평위원 등

藏 著. 『慶北年鑑』. 東京: 東洋文化協會 印刷局, 昭和11年. p. 329'에는 1936년 당시 관장명으로 일인 歌原恒 氏로 되어 있다.

58) 『教育 及 宗教』, 昭和10年. 慶尙北道 大邱府: 慶尙北道, 昭和11. p. 115. 『慶北年鑑』이 관장명년에 기재되어 있음. 『慶北年鑑』은 『朝鮮年鑑』, 昭和10年. 京城: 京城日報社, 每日申報社, 昭和9. p. 660'에 昭和9年 당시 대구부윤으로 되어 있음.

59) “朝鮮總督府圖書館”, 《文獻報國》 第5卷, 第6號(昭和14年 6月), p. 23: “大邱府立圖書館長 宮內氏의 朝鮮圖書館聯盟創立總會에 祝電”이라는 기사가 있다.

60) 《文獻報國》 第8卷, 第2號(昭和17年 2月), p. 10: 대구부립도서관장 藤村誠次郎 氏 朝鮮總督府 圖書館 見學에 대한 기사가 있음.

61) 이호봉, *op. cit.* p. 23: 1944년 9월 14일 大邱府立圖書館長 高橋耕一郎 氏가 朝鮮總督府 圖書館長에게 回報한 “圖書館調査에 關한 件”이란 공문을 통해 이날 도서관장에 취임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62) *Ibid.* p. 23.

63) 《朝鮮之圖書館》 創刊號(昭和16年 9月), p. 52: 당시 강습회의 증서 수령자 98명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으로 활동하였다.⁶⁵⁾ 그리고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발간하는 《文獻報國》에 “社會教育と圖書館”⁶⁶⁾이라는 글을 수록하는 등 도서관을 통한 사회교육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당시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은 전문지식보다는 식민지정책 수행에 책임이 있는 일본인 관리직으로 보 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공공도서관장 역시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집행자인 일본인 부윤이나 군수, 부에 소속된 장학사, 행정과장 및 서무주임이 겸하였다. 대구부립도서관의 관장도 장기간 부윤이 관장을 겸하다가 1931년에 비전문직으로 있었던 일본인 歌原 恒을 강습회를 통해 전문인으로 자격을 갖추어 1933년 최초로 부윤이 아닌 전문직 전담관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부윤을 관장으로 겸직케 한 것은 부립도서관의 설립목적인 식민지교화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차질 없는 정책을 실행키 위함이었고, 부윤의 중요업무의 하나가 조선의 지식인이나 사회지도층에 대한 독립정신을 불식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통한 교화가 가장 내실을 기하는 수단으로 부립도서관은 그 수행기관이었다. 대구부의 경우에도 다른 기관장은 한국인으로 보 하기도 하였으나 도서관장만은 일본인으로만 임명한 것은 도서관이 교화기관으로써 얼마나 중요한 시설이었나를 예측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관장 이외의 직원도 비전문직인 일본인 행정주사, 서기, 고용원, 급사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통치시기말기까지 일제가 설립한 사립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한국인은 도서관의 관리직이나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⁶⁷⁾ 이는 부립도서관의 경우도 맥을 같이 한다. 일제가 도서관 직원마저 한국인의 활용을 하위 직급으로만 활용한 것은 도서관의 본연의 기능보다는 도서관을 통한 일관된 식민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의 대구부립도서관의 직원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인적구성은 제시할 수 없지만 확인된 일부 자료에 의하면 1934년에 3명⁶⁸⁾, 그리고 1944년 7명⁶⁹⁾이었다.

64) *Ibid.* p. 63.

65) *Ibid.*, 第3卷, 第1號(昭和8年 3月)부터 第5卷, 第34號(昭和11年 6月)까지 지방소재평위원으로 활동한 근거가 있음.

66) 《文獻報國》 第2卷, 第4號(昭和11年 12月), p. 4.

67) 김포옥, 「광복이후 한국공공도서관사연구: 일제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1. p. 80.

68) “朝鮮圖書館統計”, 《朝鮮之圖書館》 第4卷, 第6號(1935年 8月), p. 22.

69)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大邱中央圖書館80年史」. 대구, 1999. p. 146.

IV. 대구부립도서관의 활동을 통한 정책분석

1. 자료조직

조선총독부도서관을 비롯한 일제가 설립한 지역 중심 도서관의 장서구성은 이용자의 열람을 위한 일반도서와 한국고판본으로 조직하였다. 열람을 위한 도서는 주로 일본화에 필요한 교화용 자료로 구성하였고, 한국고판본은 한국인의 지적유산을 정책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제가 전국적으로 수집하여 보존자료로 관리하였다. 대구부립도서관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장서를 구성하고 있다.

대구부립도서관의 자료조직에 관한 사항은 설립이후 확인된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장서구성과 조직을 분석하였다. 특히 1926년에 발행한 대구부립도서관의 '藏書目錄'⁷⁰⁾을 통하여 장서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서목록은 1926(大正15)년 5월말 현재 장서 약5,600책을 분류 편찬한 인쇄본으로 緒言,⁷¹⁾ 圖書分類大目次(1-4면), 分類小目次(5-43면), 藏書目錄(45-248면), 附錄: 大邱府圖書館條例(1-4면), 와 板權紙⁷²⁾로 구성되어 있고, 크기는 세로 21.5 x 가로 15 cm이다.

장서목록의 배열은 분류순으로 하고, 동일 분류번호 내에서는 도서명의 장서목록 기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한 알파벳순으로 하였다.

수록항목은 분류,⁷³⁾ 번호,⁷⁴⁾ 서명,⁷⁵⁾ 저자명,⁷⁶⁾ 정가,⁷⁷⁾ 발행년⁷⁸⁾으로 하였다.

목록에 수록된 장서는 일제가 설립한 다른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어로 된 자료로만 구성되어 있다.

70) 朝鮮大邱府立圖書館, 『圖書目錄』, 岐阜縣: 岐阜縣刊務所 印刷, 昭和2(1927).

71) 서언에는 수록된 장서량(大正15年 5月現在 藏書 約5600冊), 장서목록의 배열(一分類中 圖書의 配列 順位는 書名의 알파벳순), 발행소의 생략이유(冊子를 소형화하기 위해), 발행과정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양해 등이 서언을 쓴 날짜(15.7.20)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72) 판권지는 인쇄(昭和2年 2月1日 印刷)와 발행일자(昭和2年 2月 5日 發行), 발행소(朝鮮大邱府立圖書館), 인쇄소(高井辰之丞), 인쇄인(岐阜刊務所作業部)과 주소(岐阜縣稻葉郡), 그리고 가격(非賣品)이 수록되어 있다.

73) 분류체계는 10진식으로 류,강,목,세목으로 구분하였고, 목과 세목사이에는 마침표로 식별하였으며, 세목은 한 단위로 하였다. 분류번호는 주제별에 따라 10진식의 일부분만을 사용한 것도 있다. 그리고 분류항목에는 류,강,목을 큰글자로 주제명과 함께 중앙에 인쇄하고, 각 자료에 대한 분류번호를 분류항목 아래에 채기하였다.

74) 번호항목에는 도서기호로 동일분류번호내의 도착순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채기하였다.

75) 서명항목에는 도서명을 자료에 나타난 문자로 짧은 것은 한 행으로, 긴 것은 2행으로 채기하였다.

76) 저자명항목에는 저자의 개인명이나 단체명을 쉼 이외의 역할어를 함께 채기하였다.

77) 정가항목에는 책의 가격을 錢까지 채기하였다.

78) 발행년항목에는 일본기원인 大正과 明治年을 채기 하였으며, 明治년에는 '*'를 표시하였다.

일제는 통치시기 내내 한국인에 의한 도서관설립을 탄압하면서 기존의 도서관들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어로 된 자료가 한국인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취체와 압수, 분서 등을 계속⁷⁹⁾하였기 때문에 대구부립도서관의 장서구성은 당연히 일제가 식민지교육에 필요한 일본어로 된 자료로 조직하였다. 그 외의 자료는 몇권 외서와 보존자료로 수집한 한국고전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부립도서관의 장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9년 개관당시 2,701책에서 1941년 15,526책으로 많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자료의 구성은 화한서 98%, 양서 2%이고, 그 외 조선판본고서 1,080책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1943년 전국공립도서관의 총장서 321,936책중 화한서 315,942책(98.1%), 양서 5,994(1.9%)⁸⁰⁾로 대구부립도서관과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일제가 운영한 전국 도서관의 장서구성이 화한서로 되어 있었으며, 특히 열람용자료는 전부가 일본어로 된 자료였다.

<표 2> 대구부립도서관의 장서현황

연도	화한서	양서	계	비고
1919	2,701(98%)	56	2,757	
1920	2,764(96%)	123	2,887	
1921	3,156(96%)	134	3,290	
1922	3,579(96%)	142	3,721	
1923	4,920(98%)	80	5,000	@1924년 장서 13,000권 朝鮮木板古書 1,080책
1926	5,810(97%)	183	5,993	@1936년 장서 13,858권
1930	8,753(97%)	238	8,991	@1944년 장서 21,690권
1931	9,151(97%)	262	9,413	
1934	11,021	11,021	
1940	13,329(98%)	302	13,631	
1941	15,526(98%)	308	15,834	

자료 : 『朝鮮年鑑』, 1940. p. 637. 『朝鮮之圖書館』 第4卷, 第2號(昭和9年7月). p. 38-39.

@는 다른 통계에서 확인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참고자료로 비교난에 제시하였다.⁸¹⁾

<표 3>의 주제별현황은 文學과 수필총서 등 일본의 문학관계 자료가 2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본의 역사와 전기인 史傳이 9.3%, 통치에 필요한 정치법률이 8.2%, 한국인의 정신교화를 위한 윤리학 7.3%, 생산활동의 강화를 위한 농·공·산업이 5.5% 등의 순으로 일본문화를 중심으로 한 일본화에 필요한 자료들로 장서를 구성하고 있다.

79) 金南碩, “日帝의 韓國人 圖書館에 대한 彈壓”, 『靑浪齋譯漢博士華甲紀念論文集』. 서울 : 同 編纂委員會, 1990. pp. 19-38.

80) 『朝鮮年鑑』, 昭和二十年度 京城 : 京城日報社, 昭和19(1944). p. 189.

81) 達捨藏 著, 『慶北大鑑』. 東京 : 東洋文化協會 印刷局, 昭和11. p. 329: “和漢洋は 一萬二千餘冊...”이라고도 한다.

<표 3> 주제별장서현황 (1934년3월말현재)

주 제 별	책수	비율	주 제 별	책수	비율	기 타
郷土志料	638	5.8	隨筆叢書	581	5.3	朝鮮木版古書 1,082. 新聞 64종. 雜誌 85종
宗教哲學	670	6.1	倫理教育	822	7.5	
文學	1,753	15.9	語學	411	3.7	
史傳	1,021	9.3	地誌	361	3.3	
政治法律	899	8.2	經濟統計	542	4.9	
社會	462	4.2	數學理學	508	4.6	
醫學衛生	543	4.9	工學	271	2.5	
海軍兵事	131	1.2	藝術娛樂	526	4.8	
農工産業	611	5.5	商業交通	271	2.5	
계				1,1021	100.0	

자료: “大邱府立圖書館”, 《朝鮮之圖書館》 第4卷, 第2號(1934.7). pp. 38-39.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는 지방 도서관의 장서부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1923년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순회문고를 전국거점도서관으로 확대하였다.⁸²⁾ 대구부립도서관에서는 1935년 11월부터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순회문고를 받아 장서의 부족을 대체하였다.⁸³⁾

<표 4> 조선총독부도서관 순회문고 (昭和10年12月現在)

문고 발송 도서관	발송 개시일	회 수
釜山府立圖書館	昭和 6年10月	每月1回
咸興府立圖書館	昭和 6年10月	"
新義州府立圖書館	昭和 6年10月	"
木浦府立圖書館	昭和10年 6月	"
開城府立圖書館	昭和10年 6月	"
大邱府立圖書館	昭和10年11月	"
元山公立學校	昭和10年11月	"

2. 예산

부립도서관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부의 예산으로 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집행되는 도서관예산의 95%이상을 부예산으로 하였고, 열람료 및 기타 수입은 5%에 불과하였다. 설립초기인 1919년에서 1921년까지 비교적 도서관비의 지출이 적었던 3년간은 기타수입에 의한 비율이 지출의 10%이상을 상회하였으나, 1922년부터 자료가 확인

82) Ibid pp. 95-96.

83) 《文獻報國》 第1卷, 第1號(昭和10年12月), 目次裏面.

된 1936년까지는 지출의 95%이상을 지방비의 예산이었다. 대구부의 세출예산과 도서관예산의 비율은 도서관건물이 신축된 1922년과 1924년에 부 세출예산의 2.0%를 상회하였고, 1920년 1.4%, 1919년 1.2%, 1925과 1928년 각각 1.1%, 그 이후에는 점점 떨어져 1938년에는 0.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여건과 현시점의 도서관예산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예산은 파격적인 것이며, 일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관 주도로 도서관을 운영할 만큼 식민지 정책기관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표 6>은 문서에서 확인된 연도별 도서관비 지출사항이다. 1934년에 비해 도서관비는 매년 증가하여 1943년에는 2.2배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비용의 증가는 주로 인건비와 기타비

<표 5> 대구부립도서관 연도별 예산

연도	수 입 부			지 출 부				
	열람료	기타	계	지출비	도서관비	임시비	계	부세출비율
1919		405	405	22.2	1,826		1,826	1.2
1920		670	670	20.0	3,350		3,350	1.4
1921		357	357	11.4	3,129		3,129	0.9
1922		30	30	0.2	2,006	17,158	19,164	2.3
1923	60		60	0.7	9,001		9,001	1.0
1924	145		145	1.7	8,477		8,477	2.0
1925	134		134	2.6	5,188		5,188	1.1
1926	164	85	249	4.9	4,947	150	5,097	0.9
1927	214		214	4.0	5,321		5,321	0.9
1928	179		179	2.9	5,326	950	6,276	1.1
1929	162		162	3.0	5,326		5,326	0.9
1930	171		171	3.3	5,260		5,260	0.9
1931	143		143	2.6	5,425		5,425	0.9
1932	114		114	2.4	4,830		4,830	0.9
1933	151		151	3.2	4,676		4,676	0.6
1934	199		199	4.0	4,988		4,988	0.6
1935	230		230	4.7	4,866		4,866	0.5
1936	281		281	4.7	6,021		6,021	0.6
1937					5,899		5,899	0.6
1938					5,097		5,097	0.5
1939					5,384		5,384	
1940					6,939		6,939	
1941					8,778		8,778	
1942					8,600		8,600	
1943					10,903		10,903	

자료: 『大邱府史』: 第二 府政編. 大邱府, 昭和18. pp. 207-208; 朝鮮總督府 編纂.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8年-昭和10年. 京城: 朝鮮總督府 發行. 1919-1935.
 참조: 『朝鮮之圖書館』, 朝鮮總督府圖書館. 第4卷, 第6號. p. 22; 『朝鮮統計年報』. 1943. p. 214; 『朝鮮社會年鑑』. p. 82; 『每日申報』 1937年 3月 7日. 4면; 『大邱府稅一般』. p. 30; 『大邱中央圖書館80年史』. p. 146 등 참조.

용이다. 이에 반해 도서관비의 경우는 1934년에 비해 1943년까지 금액자체에 거의 변동이 없었

으며 도서관전체 예산의 증가에 의해 그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1934년 도서관 예산의 40.8%로 이던 도서비가 매년 하향하여 1943년에는 19.3%로 떨어졌다. 이렇게 도서비의 비율이 떨어진 것은 도서관을 한국인의 일본화에 필요한 일본 어문학 및 일본역사 관계 서적과 생산활동의 장려를 위한 농업을 포함한 기술서적 등 기본적인 자료로 일관하고, 그의 식민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교화서적위주로 자료를 보충하는 정도였으며, 시기별로 정책에

<표 6> 도서관비 지출명세서

연도	인건비(%)	도서비(%)	기타(%)	계(%)
1934	2,158(43.2)	2,040(40.8)	790(15.8)	4,988(100)
1940	3,779(54.5)	2,000(28.8)	1,160(16.7)	6,939(100)
1941	2,746(21.3)	2,120(24.2)	3,910(44.5)	8,778(100)
1942	5,173(60.2)	2,032(23.6)	1,395(16.2)	8,600(100)
1943	6,853(62.9)	2,100(19.3)	2,220(20.4)	10,903(100)

필요한 자료는 조선총독부의 순회문고를 활용하였다. 일제는 공공도서관에 설립초기 정책에 필요한 자료로 제한된 도서관장서를 구성하였고, 그 이상의 더 많은 내용의 지식이나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는 현상유지에 필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 그리고 인건비와 기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도서관을 시설적인 사회교화기관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강연, 보고회 등 계층별 각종모임을 통한 식민지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3. 열람

대구부립도서관의 활동상황을 보면 일제가 도서관을 통한 교화활동을 얼마나 집요하게 집행해 왔는가를 짐작케 한다. 1923년 대구부립도서관의 개관계획⁸⁴⁾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서 열람현황을 분석하였다. 대구부립도서관은 통속도서부, 특별도서부, 그리고 전문도서부로 운영되었다. 이들 각부의 활동사항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通俗圖書部(常識資料)

- (1) 일반인의 상식함양 및 연학적 필수도서류를 수집
- (2) 소년 및 아동의 면학증진에 적당한 도서류를 선택제공
- (3) 일반사회의 사상을 주지시키기 위한 신문, 잡지, 관보류 기타 신간도서를 수집

84) 都甲玄郷, “大邱府立圖書館に就て”, 《慶北》 第2年, 第9號(大正12年 9月), pp. 70-79, 84.

2) 特別圖書部(研究資料)

- (1) 향토 즉 경상북도에 관한 문헌기록류 수집
- (2) 조선에 관한 고금의 문헌기록류 수집
-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외국의 특수한 도서류 수집

3) 專門圖書部(參考資料)

- (1) 향토, 즉 경상북도에 관한 산업일반의 통계, 기록, 사업지침 기타
- (2) 인접도에 관한 산업일반의 기록류
- (3) 내지, 만주, 지나 기타에 관한 산업일반의 기록류
- (4) 기타 행정, 경제, 교통, 토목, 교육, 위생, 상공업 등에 관한 사회적시설의 기록류
기타

이는 일제가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설립하고 한국의 고전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운영체계는 일제시대의 모든 공공도서관에 공통적인 것이었는데 일제는 도서관의 크기에 따라 일반인의 교화를 위한 열람시설로 통속도서부를 먼저 운영하고, 다음에 도서관의 크기에 따른 기능을 중심으로 특별도서부와 전문도서부로 확장하였다.

일제가 도서관 운영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통속도서부이다. 통속도서부는 모든 계층의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일본화에 필요한 필독도서, 아동도서, 연속간행물 등의 자료를 이용한 교화공간으로 활용하였다.

특별도서부는 연구도서를 중심으로 수집, 열람하는 기능을 가졌으나 여기에 수집되는 자료는 설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향토의 고문헌과 향토자료를 정책적으로 집중 수집하였다. 이들은 식민화의 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도서부는 통계, 연감, 사전 등의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大正15년에 발간한 대구부립도서관의 '도서목록'에 의하면 '郷土史料'항목으로 특별구분을 위한 분류번호 '000'을 주어 전 영역을 일본학을 배열관리하고 있었다.⁸⁵⁾

이외도 대구부립도서관에서는 부인열람실과 부인대출둔고⁸⁶⁾를 설치하여 가정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인층의 교화를 위한 특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대구부립도서관의 열람활동은 조선총독부에 설치되어 있는 부인열람실, 특별열람실, 대중문고, 순회문고 등의 열람활동⁸⁷⁾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대구부립도서관에서는 자료를 이용한 교화가 한국인의 자발적인 각성을 촉진시키는 가장

85) 『圖書目錄』, 朝鮮大邱府立圖書館(岐阜縣稻葉郡長良村 印刷), 昭和2, 248, 4 p.

86) 《朝鮮日報》1931年 9月 29日, 7면: “大邱圖書館 婦人讀者優待”라는 제목으로 “대구부립도서관에서는 종래부터 부인열람에 편의를 보아왔으나.... 이러한 부인들에게 독서의 자유를 주고자 금번 부인대출문고를 설치하고 일반가정에 도서를 빌려준다는바...”

87) 『朝鮮年鑑』, 昭和十年度. 京城: 京城日報社, 每日日報社, 昭和9(1934). pp. 482-483: “朝鮮總督府圖書館에서 15年 4月 婦人閱覽室, 特別閱覽室, 調査室 開設, 16年 巡迴文庫, 大衆文庫를 開設하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전제하에 지방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고, 독서취미를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화사업은 학술강연회, 예술전람회 및 사적자료, 그리고 과학자료 등 각종전람회, 청소년의 간담회 개최, 독서회의 조직, 신간서의 소개 및 특수출판물의 소개 등을 통한 당시 대구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에게 도서관을 통한 교화사업에 조직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정신작용을 위한 열람공간을 확보하여 이들 자료를 별치하고, 열람자의 이용을 유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교화강연도 병행하였다.

<표 7> 연도별 열람현황

년도	개관일수	열람인원	일일평균	열람책수	일일평균	수입
1919	229	5,106	22.3			
1920	295	8,410	28.5			
1921	304	9,094	29.9			
1922	301	8,463	28.1			
1923	(41)	1,871	45.6			
1924	301	5,735	19.1			144.67
1925	288	6,385	22.2			134.33
1926	291	8,044	27.6			164.23
1927	294	10,640	36.2			214.36
1928	291	8,982	30.9			179.00
1929	290	8,052	27.8			161.43
1930	292	8,438	28.9			155.37
1931	293	7,248	53.7			143.00
1932	289	5,154	17.8			113.73
1933	292	7,999	27.4	19,692	67.4	150.86
1934	291	10,064	34.6			199.62
1935	292	11,715	40.1			230.38
1936	239	14,858	62.2			280.91
1937	284	15,480	54.5			
1938	284	13,688	48.2			
1939	327	16,616	50.8			
1940	321	17,547	54.7	29,530	92.0	
1941	310	16,585	53.5	19,730	63.6	
1942	320	15,273	47.7	18,958	59.2	
1943	343	17,779	51.8	23,287	67.9	
평균	284	10,709	37.7	22,279	70.1	174.76

자료: 『大邱府史』, 第二 施政編, 昭和18, pp. 207-208; 『每日申報』 1937年 3月 7일, 4면; 『朝鮮年鑑』, 1940, p. 637; 『大邱中央圖書館80年史』, p. 166.

이 외에도 대구부립도서관은 보다 많은 시민으로 하여금 도서관이용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열람자에 대한 장학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은 일본인을 제외한 교화를 필요로 하는 조

선인에게 도서열람에 대한 특별증명서를 발부하여 도서관이용에 혜택을 부여하였고, 선량하다고 인정되는 열람자 약간명에게는 취업장소까지 소개하는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도서관을 통한 자기 교육은 취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통해 조선인의 도서관이용을 유도하였다.

<표 7>의 열람사항은 1919년 대구부립도서관의 설립에서부터 1943년까지 25년간 자료에서 확인된 통계수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5년간 총열람인원은 267,626명으로 연간평균 10,709명이다. 개관당시인 1919년에는 5,106명인데 비해 1943년에는 17,770명으로 3.49배나 늘어났으며, 개관일수는 년평균 284일로 1919년 229일에서 1942년에는 343일로 114일나 늘어났다. 그리고 열람책수는 자료에 나타난 5년 동안 년 평균 22,279책, 그리고 1일 평균 70.1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열람인원이나 열람책수는 꾸준히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일제가 식민지 정책의 강도를 반영한 시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31년 1일평균 열람인원이 53.7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宇垣總督의 통치시기로 민족교육의 말살과 일제의 교화를 위한 도서관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1933년부터 전개된 농촌진흥운동⁸⁸⁾과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의 조직을 거쳐 1940년 국민총력운동조선연맹⁸⁹⁾을 조직하여 일본화를 위한 교화사업이 전개되는 등의 원인으로 이 때에도 도서관의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열람책수나 열람인원에 대한 추세는 초기에는 한국인이 일본어에 대한 해독율이 낮았기 때문에 한국인보다는 일본인이 주로 이용하였으나 일본어교육이 강화되면서 일본어 해독율이 높아졌고, 학교를 졸업한 지식인에 대한 도서관이용의 유인책으로 한국인 도서관 이용률이 계속 증가되었다.

V. 결 론

대구부립도서관의 설립은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고조된 반일감정을 수습하기 위한 문화정치로 선회하면서 도서관이라는 문화시설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한국의 지식인을 회유하고 지역민의 교화를 위한 것이었고, 한국인에 의한 계몽적인 도서관활동을 저지키 위한 것이었다. 대구부립도서관은 설립계획에서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방행정에 책임이 있는 역대 부윤이 주도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도비에 의하였다.

88) 朝鮮總督府, 『朝鮮における農村漁村振興運動』. *op. cit.* p. 2.

89)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京城: 朝鮮教育會, 1936. pp. 205-221.

대구부립도서관의 활동은 (1) 당시 대구부에 거주하였던 일본인들의 교육시설로 활용되었다. 부립도서관이 설립될 당시 대구부에는 1만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사회교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였다. 일제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자기교육시설로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였다. (2) 대구부의 조선인 교화시설로 활용되었다. 당시 대구부의 조선인 3만명을 위해 도서관을 개방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일본어 해독이 가능한 학교졸업자들에게 일본자료를 이용한 일본문화의 보급과 이를 통한 일본화를 기하였다. 모범이용자의 취업알선, 이용자의 편의성 제공, 부인열람실 설치, 교화강연회, 심전문고설치 등 대구부의 한국인 교화활동을 선도하였다. 특히 열람용 장서는 일본어 자료로 구성하여 지식의 보급을 정책으로 구성된 일본자료에만 의존하게 하였다. (3) 대구부를 비롯한 경상북도의 대표도서관으로 도내의 도서관들의 교화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

대구부립도서관이 미친 영향은 (1) 대구부립도서관은 비록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교화시설로 설립한 시설이지만 한국최초의 부립도서관으로 이후 조선의 공공도서관정책의 주관기관으로 설립한 조선총독부도서관 설립에 영향을 주었고, (2) 1926(大正15)년에는 5,600여 책에 대한 장서목록을 만들어 전국의 도서관과 이용자들에게 자료이용에 편리를 제공할 만큼 전국의 공공도서관발전을 선도하였으며, (3)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의 공공도서관 설립의 효시가 되었고, (4) 1923년에 신축된 대구부립도서관은 당시 대구부의 몇 개되지 않은 상징적인 건물로 대구를 도서관중심의 도시로 부각시켰으며, (5) 일본인에 의한 교화시설이지만 부민의 자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부립도서관을 통한 한국인에게 미친 학문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은 대구를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자리 매김하는데 기여한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6) 부립도서관이 해방이후 한 동안 폐관상태로 공백기가 있었지만 현재의 대구광역시중앙도서관과 역사적으로 직접 연결된 맥을 같이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와 그 외 대구시내에 공공도서관발전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